

더불어 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5.05.27.(화) 배포즉시	배포일시	2025. 05. 27.(화) 16:00
위원장	정동영 (02-784-8340)	담당자	홍웅표 보좌관(010-3646-9917)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74명, 이재명 후보 공개지지 선언해

- ‘AI·내란·관세·지정학 폭풍’속 국익 우선 “Korea First” 주권외교 절실... 이재명 후보가 평화외교의 설계자·중재자 적임자
- 윤석열 정부, 철 지난 이념 외교와 진영 대결 외교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한 내란 시도는 천인공노할 일
- 김대중 전 대통령의 4대 원칙(선이후난·선경후정·선민후관·선공후득) 계승... 남북기본합의서 복원, 북미·북일 수교 여건 조성, 6자회담 및 9·19 공동성명 제안해 동북아 다자협력 플랫폼 재가동해야

- 5월 27일(화)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편사니즘위원회 산하 ‘한반도평화경제위원회’(위원장 정동영)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전문가 74인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력히 피력하며 진행됐다.
- 지지선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모범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시킨 인물”이며, “지난 정부 내내 철 지난 이념 외교, 진영 대결 외교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장기 방송 재개▲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평양 상공 드론 침투 및 전단 살포▲오물풍선 대응 타격 시도 등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끊임없이 유도하고, 내란을 도모하려 한 시도는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등장으로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폭풍’, ‘관세 폭풍’, ‘AI 폭풍’, ‘지정학 폭풍’이라는 네 가지 격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대전환기에는

“Korea First”, 즉 국익 우선의 주권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4대 원칙인 ‘선이후난(先易後難)’, ‘선경후정(先經後政)’, ‘선민후관(先民後官)’, ‘선공후득(先供後得)’ 정신을 되살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복원▲북미·북일 수교 여건 조성▲동북아 다자협력 플랫폼의 재가동▲6자회담 및 9·19 공동성명을 제안했다.
- 전문가들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평화외교의 추종자가 아니라, 설계자이자 중재자, 촉진자로 나서야 할 때”라며,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할 책임자가 이재명 후보임을 강조했다. <끝>

※ 붙임 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지지 선언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외교 · 안보 · 통일 전문가 지지선언문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현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및 한반도평화경제위원장)이 제안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모범국에서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추락시키려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철 지난 이념 편향 외교, 진영 대결 외교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평양 상공 드론 침투와 전단 살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끊임없이 유도하려 했고 이를 빌미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내란과 외환은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등장으로 국제질서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대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에는 네 개의 폭탄, 즉 ‘내란 폭풍’, ‘관세 폭풍’, ‘AI 폭풍’, ‘한반도 지정학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Korea First”입니다. 국익 우선을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에 놓는 주권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평화를 설계할 시간입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평화·외교의 추종국이 아니라 설계자, 중재자 촉진자로 나서야 합니다. 6자 회담과 9.19 공동성명을 통해 드러났던 한국 외교의 리더십을 복원하고 하노이 북미회담의 실패에서 실용적 교훈을 도출해야 합니다.

미·일·중·러 주변 4대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4선 원칙인 선이후난(先易後難), 선경후정(先經後政), 선민후관(先民後官), 선공후득(先供後得)의 정신을 되살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북미와 북일의 수교 여건을 조성하고 동북아 다자협력 플랫폼을 재가동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반도 평화 재설계와 동북아 다자협력 플랫폼의 재가동을 위한 책임자임을 믿습니다. 그동안 올바른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을 해왔던 우리들의 의지를 모아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2025년 5월 27일

□ 지지 선언 참여자 명단

- 문정인(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특임교수,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
- 김연철(현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전 통일부 장관)
- 백학순(현 김대중학술원 원장, 전 세종연구소장)
- 고유환(현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김기정(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 양무진(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김현철(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 이정철(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이해영(현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및 다극화포럼 이사장)
- 김준형(현 국회의원, 전 국립외교원 원장)
- 양문수(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김동엽(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호사카 유지(현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 및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 조성렬(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전 외교부 본부대사)
- 홍현익(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전 국립외교원 원장)
- 정일영(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
- 왕선택(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대우교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조봉현(현 IBK연금보험 부사장,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 최아진(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 김희교(현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짚개주의의 탄생 -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 저자)
- 김창현(현 뉴스토마토 산하 ‘K평화연구원’ 연구원 소장 및 한반도평화경제회의 공동의장)
- 김경협(전 국회의원, 전 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종철(현 경상국립대 정치학 교수, 한중관계 전문가)
- 김지운(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문기(현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 박창식(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전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 김경민(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현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공동대표)
- 이왕휘(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윤은주(현 사단법인 외교광장 부이사장 및 사단법인 뉴코리아 대표)
- 김종욱(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 장용석(현 인제대 통일학부 초빙교수)
- 장창준(현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황재호(현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 이상수(현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오삼언(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 정대진(현 한라대 교수 및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 김일한(현 사단법인 한반도경제협력원 연구위원 및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 최재덕(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 교수)

- 성원용(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
- 정재홍(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백인주(현 아주대 다산학부대학 겸임교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양기호(현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강호제(현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연구교수)
- 황재준(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 주장환(현 한신대 동아시아통상학 교수)
- 최필수(현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 이지나(충청권역 남북경협협력단 사무총장)
- 임상우(현 서강대 명예교수 및 중립코리아국제연대 위원장)
- 변현섭(현 계명대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교수)
- 박계화(현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 한재현(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 이용민(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 유영주(현 사단법인 희망래일 상임이사)
- 하범식(현 대만 국립가오슝대학 동아시아어문학과 교수)
- 안병민(현 북한경제포럼 회장)
- 황교육(현 북한경제포럼 연구위원)
- 김영술(전 전남대 디아스포라학과 연구교수)
- 조형진(현 인천대 중국학술원 부교수)
- 진희권(현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구원)
- 이광수(현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 현재호(현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배기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김명수(현 계명대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 김상범(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윤영상(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 이세영(현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공동대표)
- 콧덕환(전 한남대 교수)
- 김시현(현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교수)
- 구성철(현 창원대 중국학과 강사)
- 이태림(전 국립외교원 러시아 담당 교수)
- 이양재(현 리준만국평화재단 이사장)
- 최은주(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이상민(현 러시아학술원 동방학연구소 객연연구원)